

MONTHLY PHOTOGRAPHY

월간사진

FEBRUARY 2016



찍고 즐기고 공유하라 Photo and the City

인스타그램 스타 사진가 10인의 눈으로 본 도시, 이미지가 넘쳐나는 SNS 세상을 논하다
사진가의 심장을 뛰게 한 도시들, 스마트폰 카메라용 촬영 액세서리들

사진가 임채욱, 송희정
시그마 아트라인 렌즈의 매력 집중 분석
후지필름 X시리즈 5주년을 기념하다

2



로스앤젤레스의 재발견

George Byrne 조지번

@george_byrne



LA의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미니멀한 사진은 사진가 조지번의 심미안 덕분이다.

- # 새로운 도시와의 만남 현재 로스앤젤레스에서 생활하며 작품 활동을 하고 있지만, 태어난 도시는 호주 시드니다. 시드니 대학에서 순수예술과 인류학, 철학을 공부했다. 뉴욕에서 일 년 간 생활했고, 로스앤젤레스의 매력에 빠져 아주를 결심했다. LA는 다른 도시와는 전혀 다른, 뚜렷한 미학이 존재하는 곳이다.
- # 2013년 인스타그램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해다.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보고 느낀 도시의 진면목을 공유하기 위해 적어도 하루에 하나의 이미지를 업로드하려고 노력한다.
- # 스케치북 인스타그램은 나에게 스케치북 같은 존재다. 로스앤젤레스가 갖고 있는 특유의 느낌을 살려 사진을 촬영하고, 그 이미지를 실시간으로 타인과 교류할 수 있다는 사실이 매우 흥미롭다. 그 안에서 무수히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성된다.
- # 다양한 카메라 아이폰 6s, 미미아 M6, 필릭스 6/7, Canon 5D 등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다. 스마트폰부터 필름카메라까지 다양하다. 제각각의 장단점을 갖고 있기에 상황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.
- # 서울 한 번도 방문한 적 없는 도시다. 한국은 유구한 역사와 아름다운 자연을 간직한 곳으로 알고 있다. 언젠가 꼭 서울을 피사체 삼아 작업하고 싶다.

George Byrne 로스앤젤레스가 갖고 있는 도시의 아름다움을 더 절묘하게 포착하는 사진가 그의 인스타그램에는 비비드한 컬러, 미니멀한 건축물이 아무런 로스앤젤레스의 모습이 담겨있다. 팔로어가 현재 4만 명이 넘는다는 세계 각국에서 전신을 거둔다. www.georgebyrne.com



©George Byrne



©George Sime



©George Sime



©George Byrne



©George Byrne